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소비자 신뢰도 10년래 거의 최저… 바이든에 골칫거리
- WSJ: 코비드, 미국 인력에 계속 타격 주고 있어

**[미 중간 선거]**
- CNN Business: 중간 선거가 미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 The Economist: 중간 선거 보이지 않는 관전 포인트는?

**[미국 금융]**
- NYT: 오늘 중간선거 날 주식은 상승세...
- Bloomberg: 10월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88억불 빠져나가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일본도 미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동등 혜택" 요청
- WSJ: 중국 수출 급감… 세계 경제 둔화 탓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UBS "美 연준 내년에 금리 175bp 내릴 것...금값 반등 예상"
- 연합: 모건스탠리 "공화당 상하원 장악시 주가 단기 랠리 가능성"
- 한경: AMC,줌비디오와 제휴로 영화관을 '줌룸'으로... 대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 소매업체들, '산더미 재고' 연말 세일 강행
- The Economist: 미 테크 산업 정리해고 확산… 업계 충격 커
- WSJ: 미 정규직 근로자들, 치솟는 물가에 부업 찾는다
- CNBC: 알리바바, 한국에 사업 확장… 7백만 달러 투자
- CNBC: 르노자동차, 구글과 손잡고 새로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개발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11월)**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CNBC: Consumer confidence is near its lowest in a decade, and that could be a problem for Biden**
**소비자 신뢰도 10년래 거의 최저… 바이든에 골칫거리**

-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바이든과 민주당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 최근 관련 조사들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신뢰도가 아주 약간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떨어졌다. 작년에 처음으로 인플레 때문에 정책 결정

자들과 쇼핑객, 기업 경영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 미시간대학 1천 1백명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59.9로 9월보다는 1.3 늘었으나 지난해 10월의 71.7보다는 크게 떨어졌다. 또한 21%만 민주당 지지, 37%는 공화당, 다른 37%는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CNBC 기사

**WSJ: Covid's Drag on the Workforce Proves Persistent. 'It Sets Us Back.'**
**코비드, 미국 인력에 계속 타격 주고 있어**

- 감염률이 줄고, 제한 조치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

- 이유는 이렇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여파를 주다 보니 수백만 명이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생산성도 떨어져 수백만 시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평균 월별로 볼 때 거의 63만명 정도가 몸이 아파서 팬데믹 때 보다 적어도 1주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는 전체 노동력의 0.4%가 줄어든 셈이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엄청난 노동력 손실로 볼 수 있다. 현재를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할 때는 생산 인력이 0.1% 줄어들었다.

- 또한 스탠포드와 MIT 조사에 따르면 또 다른 50만명이 코비드 전염의 계속된 여파로 일을 못했으며 10월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코비드 우려 때문에 예전에 1주간 일을 못 한 미국인이 1백10만명이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 중간 선거]**

**CNN Business: What midterm elections could mean for the US economy**
**중간 선거가 미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세금>**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최근 바이든이 천명한 수익 높은 오일 회사에 대한 과세는 의회에서 승인되기 힘들고 부유세도 시행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채 한도>**
내년에도 1) 미 정부 운영이 필요한 부채를 빌리기 위해 또한 2) 대략 24조에 달하는 국채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길 경우) 하원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가로 연방 지출을 크게 줄이려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소셜 시큐리티>**

미국 부채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해 공화당은 축소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
민주당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공화당은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이 돼도 연방 부채(국제) 매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The Economist: What to watch ahead of the midterms**
**중간 선거 보이지 않는 관전 포인트는?**

- 접전 주들이 관심사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미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화당이 예상대로 하원에서 이기고 상원도 통제 할 수 있다면 일당 독식 정치가 적어도 2024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
- 텍사스 검찰총장이 누가되느냐가 국가적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당선된 현 검찰총장 Ken Paxton은 재선을 희망하며 이민, 낙태, 트랜스젠더 민주당 정책에 대해 소송을 건 상태다.
- 27개 주 정부 차원의 국무장관 선거에서 13개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선의 합법성을 부정했던 인물들이다. 36개 주의 주지사 선거도 이번에 함께 치러지는데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캘리포니아 등이 관심사다.

The Economist 기사

## [미국 금융]

**NYT: Investors Bet on Midterm Bounce for Stock Market**
**오늘 선거 날 주식은 상승세인데…**

- 오늘 중간 선거에 투자자들은 상하원중에 적어도 한곳에서 공화당에 베팅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S&P는 1.29% 상승 중이다. 월요일에도 1% 상승했었다.
- 많은 분석가들은 중간선거가 주식에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 관련해, 부분적으로 여소 야대 상황(gridlocked)이 발생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공화당이 양당 중 한군데를 장악하면 민주당의 소비 지출 정책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NYT 기사

**Bloomberg: Foreigners Pulled $8.8 Billion From China's Markets Last Month**
**10월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88억불 빠져나가**

- 이는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76억달러고 채권시장에서는 12억불이 빠져나갔다. 9월보다 더 빠져나갔다.
- 한마디로 제로 코비드 정책과 주택 위기 상황이 중국 경제과 지정학적인 우려에 여파를 주고 있는 것이다.
- 11월에도 외국인 자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Japan Asks US for Equal Treatment in Electric-Vehicle Policy**
**일본도 미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동등 혜택" 요청**

- 일본도 유럽,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 국내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이 차별적이라고 말하며 일본 자동차사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 일본 정부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자국 업체에 차별적인 혜택을 줄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자동차 시장이 미국에 투자를 일본 회사들이 망설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한마디로 보조금 조치가 미국에 투자 및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여파를 끼친다는 것.
- 이 성명서는 또한 자동차 최종 조립과 이를 위한 관련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에 대한 조건과 관련 "미국 정부는 북미 국가들보다 일본에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 정부는 "보조금 조치는 공급망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정책에 궤를 달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Credits for Clean Vehicles 관련한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의 의견 수렴 사이트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집어넣었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s Exports Drop Sharply as Global Economy Slows**
**중국 수출 급감… 세계 경제 둔화 탓**

- 이번 주 월요일 중국 세관 총국(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0.3% 감소했는데, 팬데믹 초기 무역 규모가 억제되었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이다. 전년 대비 4% 성장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 이는 세계 각국의 중앙 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세계 무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수출국들도 해외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의 10월 수입은 1년 전보다 0.7% 줄어들어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을 알 수 있었다. 경제학자Zichun Huang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가까워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 중국의 수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SJ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UBS "美 연준 내년에 금리 175bp 내릴 것...금값 반등 예상"
- 연합: 모건스탠리 "공화당 상하원 장악시 주가 단기 랠리 가능성"
- 한경: AMC,줌비디오와 제휴로 영화관을 '줌룸'으로... 대관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Retailers in the US Push Big Holiday Discounts to Ease Inventory Avalanche**
**미 소매업체들, '산더미 재고' 연말 세일 강행**

- 작년의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쟁이었다면, 올해의 연말 쇼핑 기간은 미국 소매업체들에게 과잉 재고, 매출 감소와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NPD의 자료에 따르면 의류 산업 매출은 2021년 21% 성장했지만, 올해 마지막 3개월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이키, 갭 등의 업체들은 공급망 문제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작년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일찍 재고를 확보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이는 세계 무역 둔화, 제조업 침체로 이어졌다.

- 또한 이러한 재고 증가는 미국 GDP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주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근로자들은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하고, 따라서 급여가 감소한다. 기업들은 재고 관리와 창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제품 가는 할인하고, 판매용 제품 비용은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다.

- 한편 2022년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물류 네트워크의 로그 잼(logjams)은 해소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고 배송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

은 소식이다.

Bloomberg 기사

**The Economist: From Twitter to Meta, tech lay-offs are spreading**
**미 테크 산업 정리해고 확산… 업계 충격 커**

- 데이터 제공 업체 Crunchbase에 따르면 미국의 테크 업계가 혹독한 침체를 겪으면서 올해 들어 5만 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미국 테크 기업 고용 인력 6백만 명 중 1% 미만이지만, 테크 기업들이 해고보다 고용에 더 적극적이었던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다.

- 이는 팬데믹 시기의 전례 없던 사업 확장과 그 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소비자들이 전자 상거래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급격히 성장했지만, 냉각이 시작된 상황이다. 메타는 2020~21년 사이 인력을 60% 늘렸지만 대량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Peloton, Robinhood, Stripe 그리고 트위터 등도 앞다퉈 인력을 감축했다.

- 경기 침체기의 해고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은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비즈니스 환경을 설명하고,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WSJ: More Workers Get Side Hustles to Keep Up With Rising Costs**
**미 정규직 근로자들, 치솟는 물가에 부업 찾는다**

- 연방 노동부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미국인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4백 50만명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일부 정규직 근로자들이 난생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 구직 사이트 Monster.co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75%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Prudential Financial Inc. 의 조사에서도 Z세대의 81%, 밀레니얼 직장인의 77%가 올해 소득 보충을 위해 임시 부업(gig)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WSJ 기사

**CNBC: Alibaba’s international arm is spending millions to expand into South Korea**
**알리바바, 한국에 사업 확장… 7백만 달러 투자**

- 알리바바의 국제 전자상거래 사업부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제품 가격을 낮춰 한국에서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7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연방 국제무역청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해외 소매 사이트 구매액은 45억 달러로 10억 달러 증가했으며, 41%는 미국이 장악했다.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지난해 8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소매 사이트 5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아마존이었다.

-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몇 년간 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지난해 한국으로의 배송을 시작해 한국 거주자들이 타오바오에서 특히 패션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CNBC 기사

**CNBC: Renault and Google team up to develop a 'software defined' vehicle**
**르노자동차, 구글과 손잡고 새로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개발**

-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는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인 "digital twin"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digital twin은 실제 차량의 배포 전에 가상 환경에 물리적 개체를 복제하여 차량 작동 방식의 고장을 감지, 해결하고 차량을 테스트 및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운전자가 전기 충전소 등 자주 가는 목적지를 자동으로 입력/활용토록 하는 방식도 운영된다.

- 한편 르노는 2018년 구글과 손잡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차량 내 미디어 디스플레이에 통합했다.

CNBC 기사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11월)**

한국은행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美정부, 4조7천억원 도난 암호화폐 회수…
## 팝콘통까지 샅샅이 수색

**미 연준, 4조7천억대 규모 도난 암호화폐 회수했다 밝혀…역대 2위 규모**
**제임스 중, 암시장 사이트 '실크로드' 맹점 공략해 비트코인 5만 개 탈취**
**이후 기업인 행세하다 주거지 급습당해 덜미…자산 압류 및 20년형 선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암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에서 10여 년 전 도난당한 33억 6000만 달러(약 4조7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2위 규모의 도난 암호화폐 회수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마약과 다른 불법적인 상품들을 거래하는 암시장 사이트인 '실크로드'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혐의의 제임스 중(James Zhong)이 지난 4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은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중은 지난 2012년 9월, 실크로드 거래 시스템의 맹점을 공략해 9개의 계정을 통해 약 5만 개의 비트코인을 탈취했다. 중은 이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가상 계좌로 암호화폐를 전송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